

[글로벌전략/중국]

한정숙
 02-3774-13861386
 suehan@miraeeasset.com

이진호
 02-3774-19401940
 jinho.lee.z@miraeeasset.com

중국 투자 전략

시진핑 주석의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

- 시진핑 주석은 수입세 인하와 수입 확대 등 시장 개방 가속화 강조
-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의 첨단산업을 포기하기 어려운 중국 정부
-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강화로 물류, 게임, 헬스케어 부문 자금유입 확대 예상

시진핑 주석은 수입세 인하와 수입 확대 등 시장 개방 가속화 강조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 시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5~10일)가 ‘새 시대,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막했다. 시진핑 주석의 개막식 연설에서는 향후 수입세 인하와 수입 확대 등 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주석의 연설과 함께 중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통신서비스, 하드웨어 등 미-중 무역갈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발언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단기 영향에 그쳤다.

이번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 130개 국가와 지역에서 총 3,000여개 기업이 참가했고, 그 중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58개국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삼성, 현대자동차, CJ, 두산을 비롯해 27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측은 시장개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할 계기로 삼았다. 다만 지난 1일 미국과 중국의 전화통화로 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반대의 입장보다는 우회적으로 중국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공조를 이끌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안이다.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발 빠르게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 지원과 상호 경계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굴복하기만 한다면 내부의 반발도 심해질 수 있다.

지난달 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통상압력에도 AI 핵심기술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고, 민간 기업 대표들을 불러 좌담회를 가져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전략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홍보가 글로벌 시장에는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1.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와 일대일로 인덱스 추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의 첨단산업을 포기하기 어려운 중국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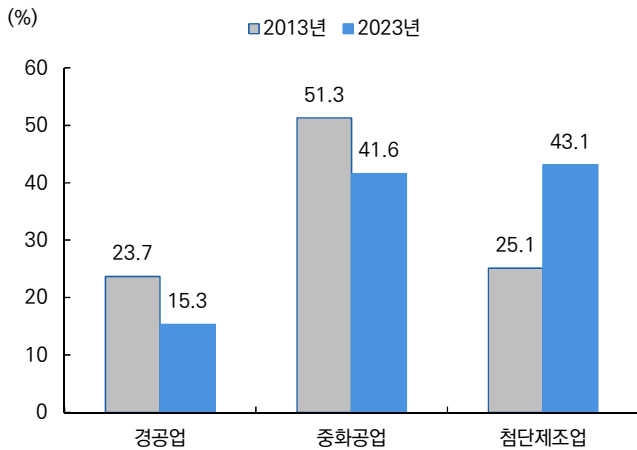
높아지는 첨단산업의 중요도

한편 첨단산업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5.9%로 제조업 부가가치율 22.2%에 비해 2.5배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매출당 고용창출 효과가 큰 첨단산업 분야의 발전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인터넷 부문의 진입장벽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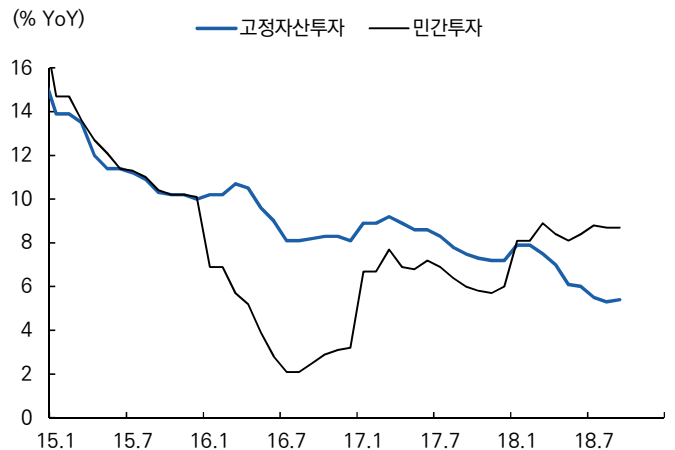
2008년부터 중국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 특히 2008년 8월에는 페이스북, 2009년 7월에는 트위터를 차단시켰으며, 2010년에는 구글이 중국 내 검색 강화로 철수했다 (참고로 2017년 말 시센터, 2018년 구글앱 서비스 재개). 반면 자국 기업들에게는 공공조달에서 70% 이상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외국 온라인게임 수입 쿼터제를 도입하여, 자국 제품에 대한 세금우대와 심의 우선 통과 등을 추진했다.

그림 2. 산업별 중국의 경제성장 기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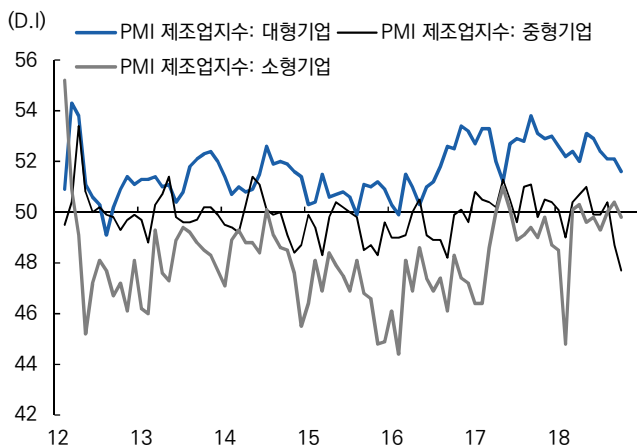
자료: Wind,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고정투자 및 민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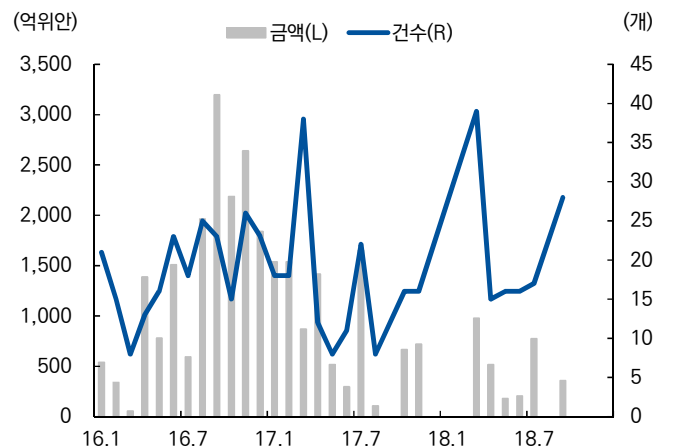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4. 기업 규모별 PMI 제조업지수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5. 발개위 프로젝트 승인



자료: CEIC,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강화로 물류, 게임, 헬스케어 부문 자금유입 확대 예상

중국제조 2025

2015년에는 ‘중국제조 2025’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흥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촉진하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요소비용 우위를 기반으로 한 성장모델에서 과학기술 혁신형 발전모델로 전환을 추진, 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특히 알리바바와 샤오미 등의 성공사례가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2015년 상반기에 매일 1만개의 기업이 탄생하는 새로운 창업 붐이 확산되며 첨단산업의 고무적인 성장세를 견인해왔다.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강화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의 경기 하방압력과 미국의 무역제재 압력으로 중국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물류, 게임, 헬스케어 부문으로 자금유입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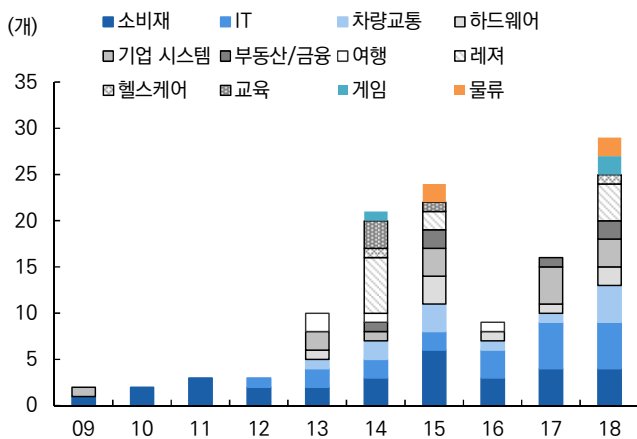
이에 따라서 중국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최근 발개위의 프로젝트 승인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작년 대비 늘어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물류, 게임, 헬스케어에 대한 알리바바의 투자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에서 풀린 자금들이 이와 관련된 민간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6.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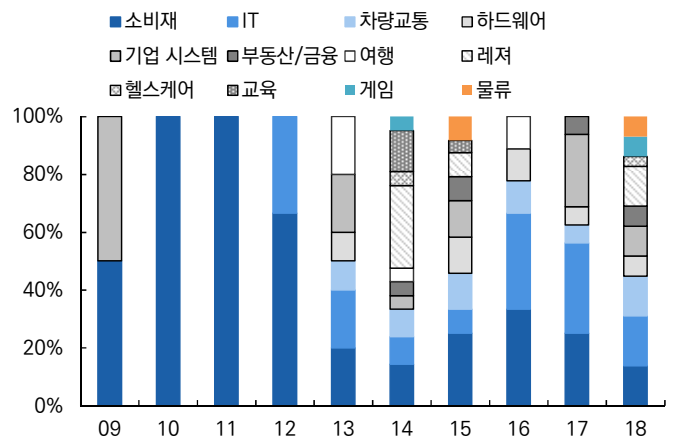
자료: 미래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7. 알리바바 투자



자료: Newseed, 미래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8. 알리바바 투자



자료: Newseed, 미래셋대우 리서치센터

중국 투자 전략

시진핑 주석의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